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66

엘리아와

바알의 선지자들

(열왕기상 18:17~4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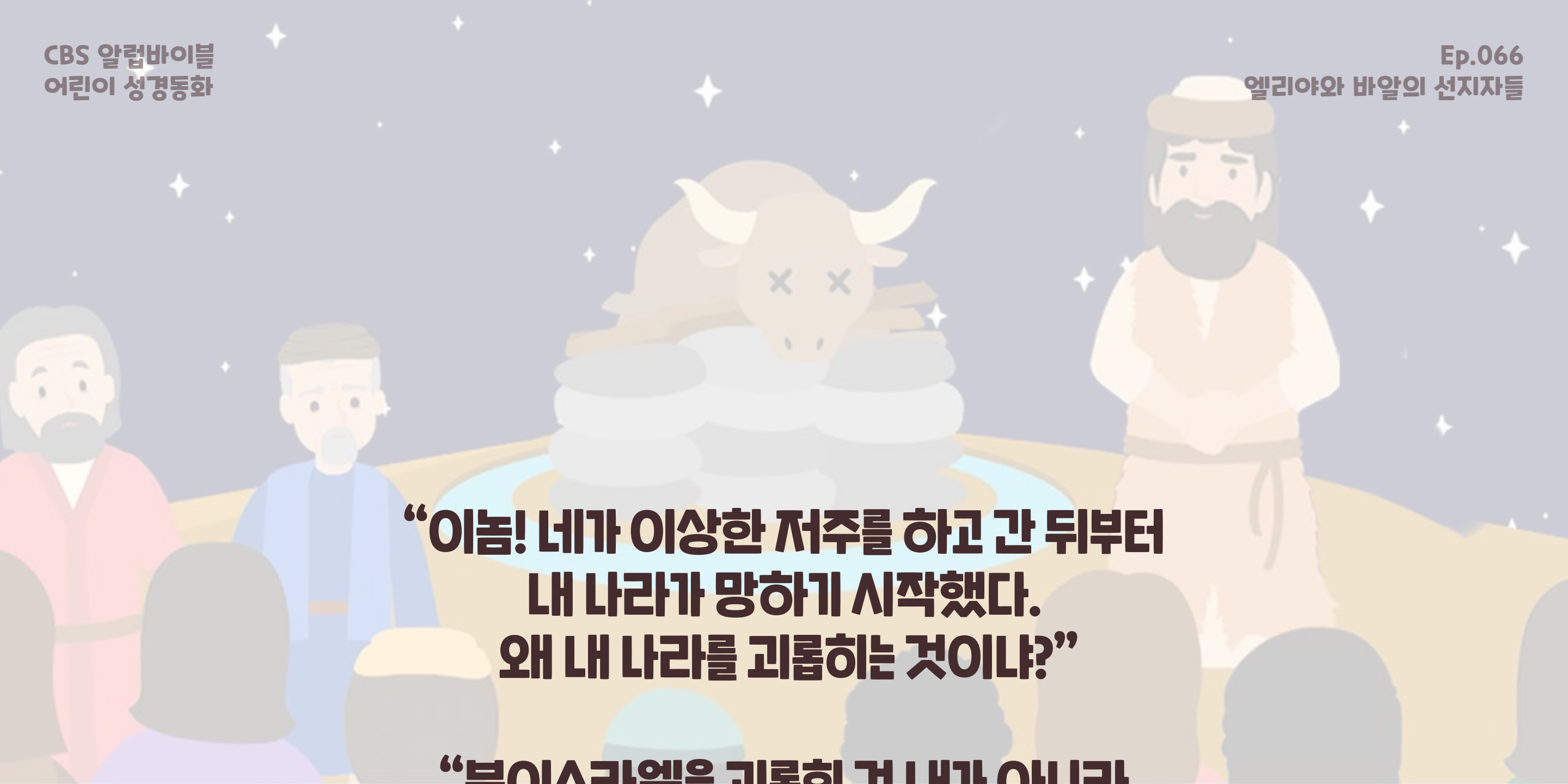


“뭐라고 했느냐?  
누, 누가 날 오라 했다고?!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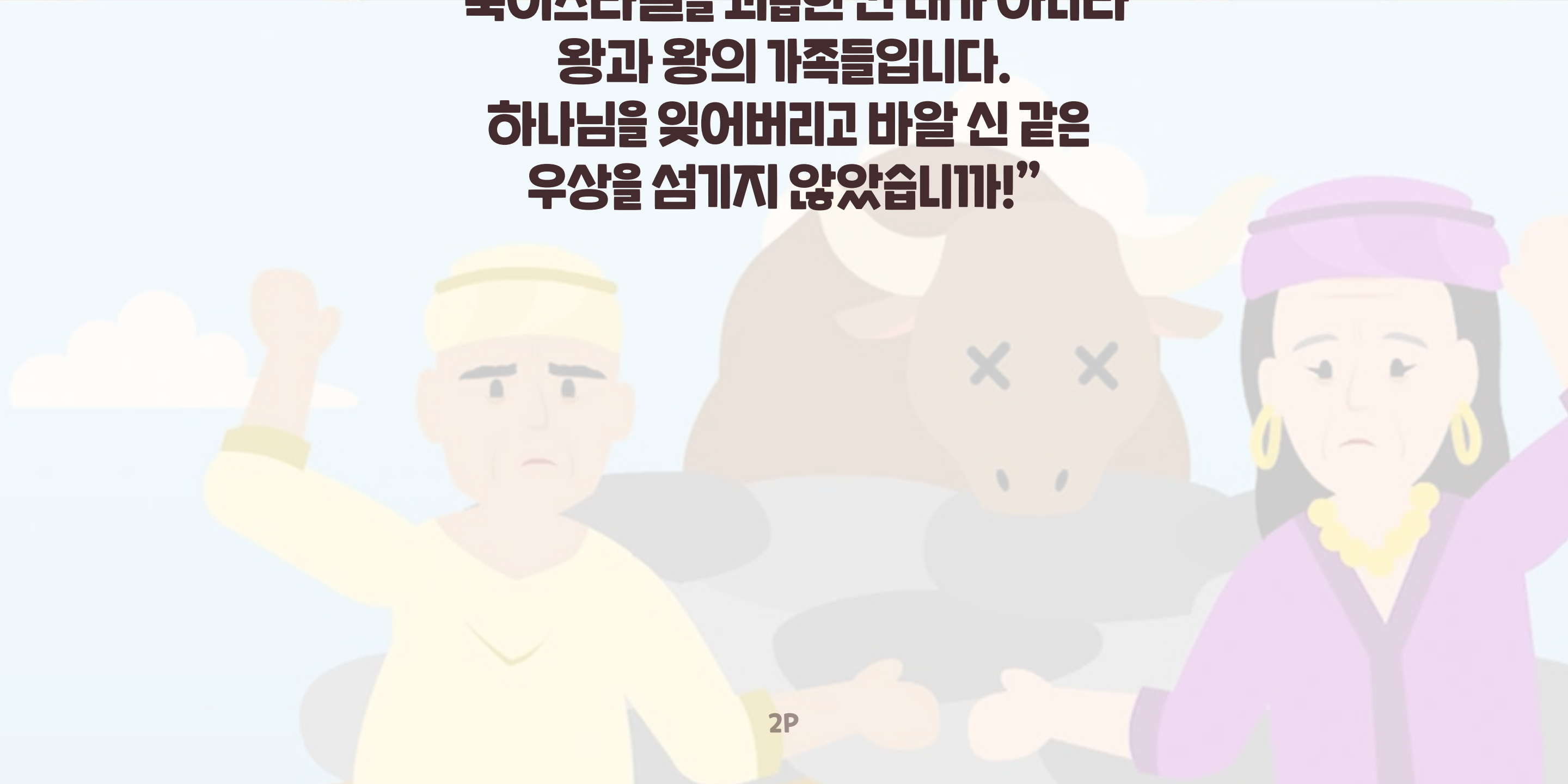
“엘리야 선지자가 맞습니다.  
틀림없이 왕을 기다리고 있겠다 하였습니다.”

신하 오바댜의 말을 들은 아합왕은 재빨리  
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.  
몇 년 동안이나 애타게 찾아다녔던 엘리야였으니까요.  
과연 그곳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서 있었어요.





**“이놈! 네가 이상한 저주를 하고 간 뒤부터  
내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.  
왜 내 나라를 괴롭히는 것이냐?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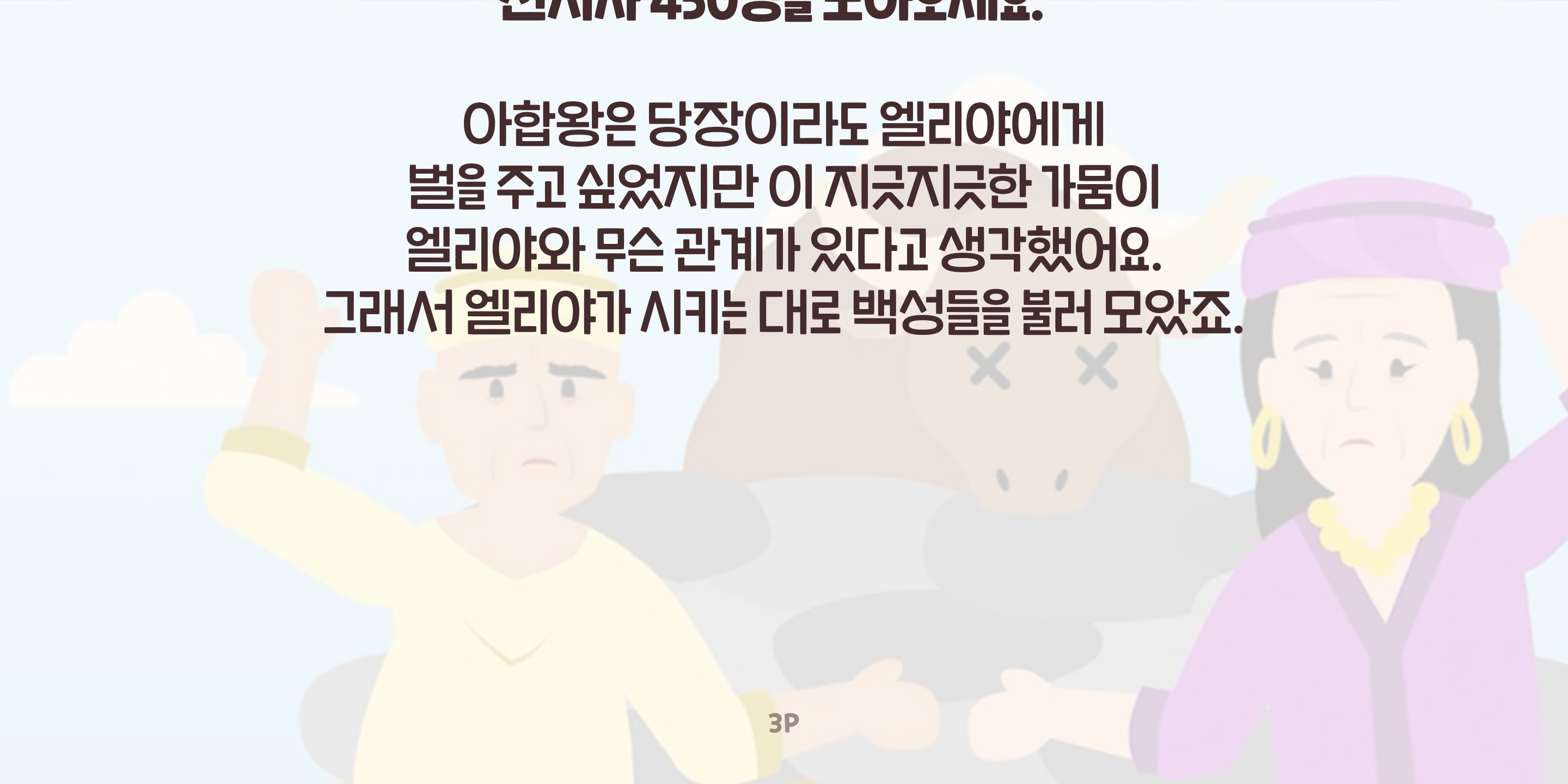


**“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내가 아니라  
왕과 왕의 가족들입니다.  
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 같은  
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!”**



엘리야가,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.

**“왕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 
갈멜산으로 불러 주시오.  
그리고 이세벨 왕비를 따라 바알을 섬기는  
선지자 450명을 모아오세요.”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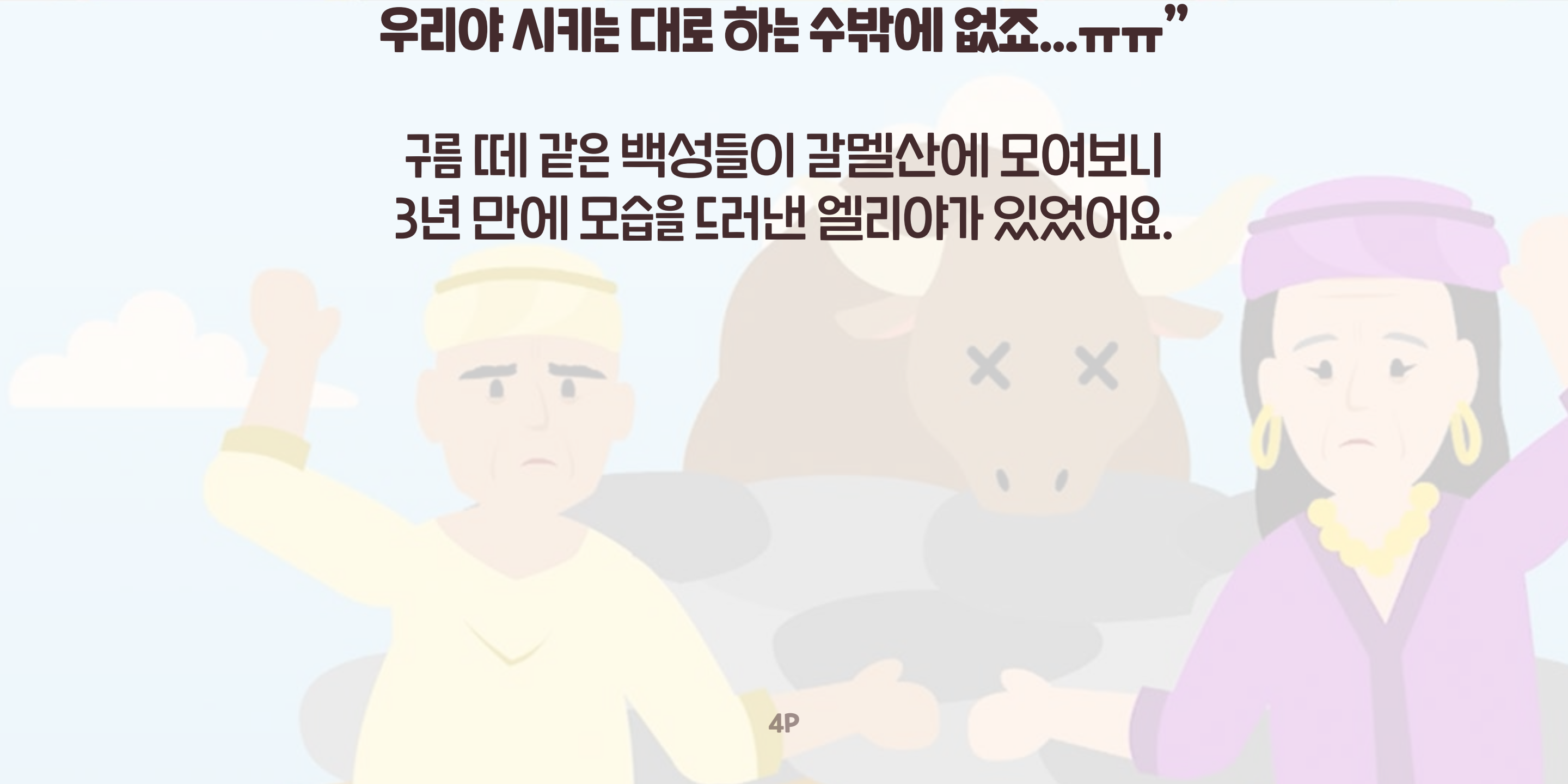
아합왕은 당장이라도 엘리야에게  
벌을 주고 싶었지만 이 지긋지긋한 가뭄이  
엘리야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.  
그래서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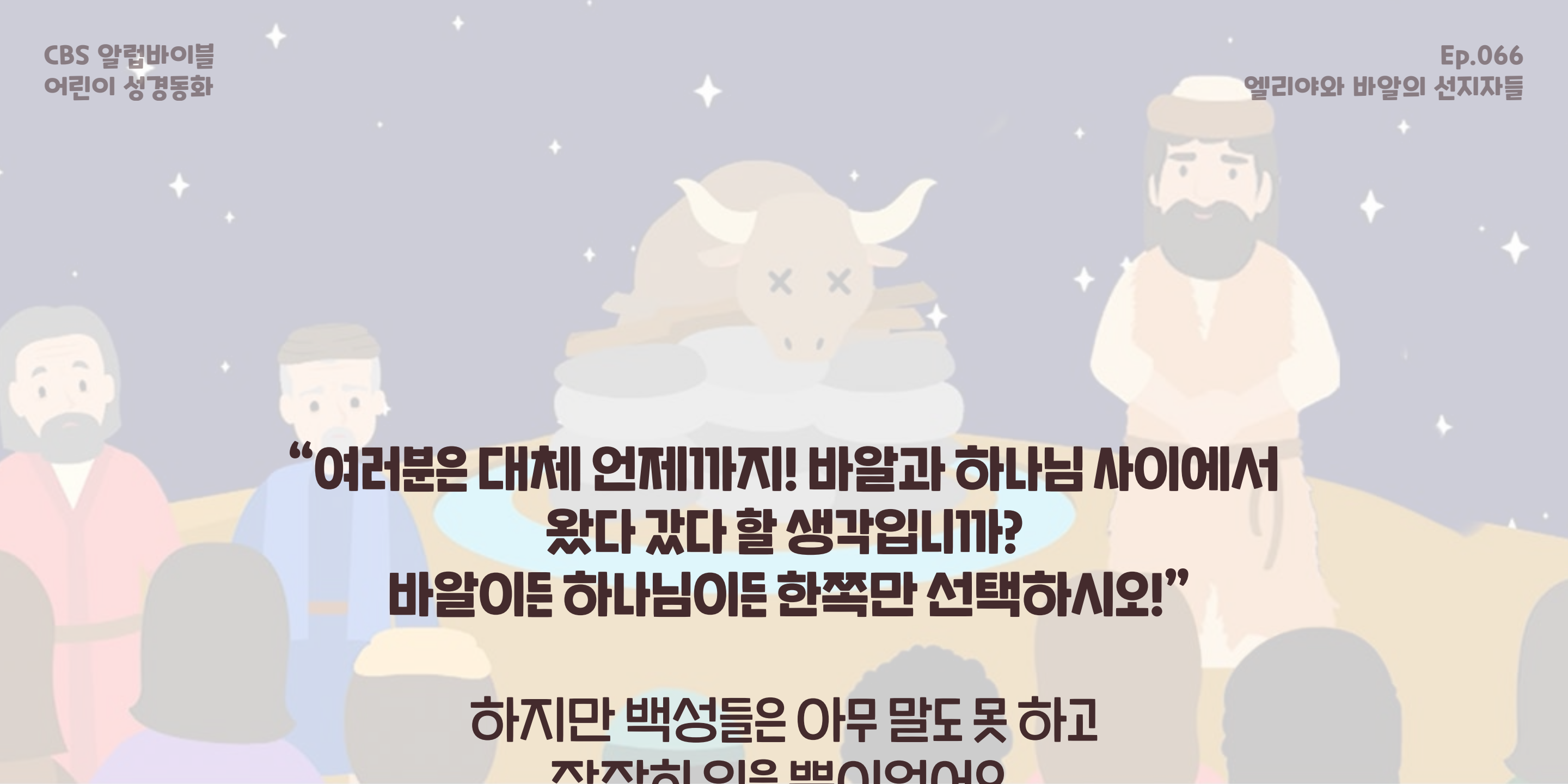


“아이고.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에  
왕은 왜 아침부터 산에 모이라는게야...”

“넌들 아나유?  
우리야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...ㅠㅠ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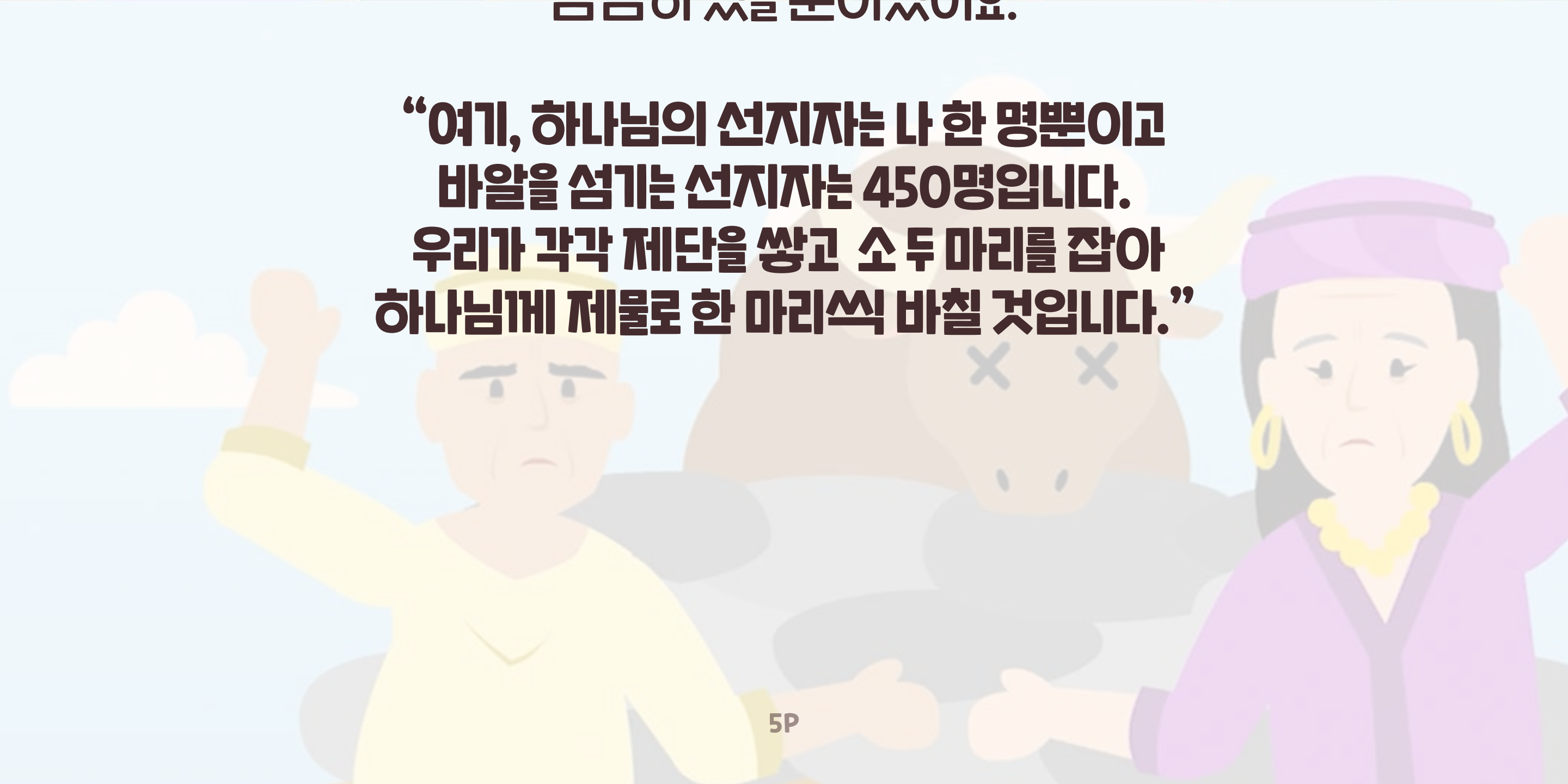


구름 떼 같은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보니  
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엘리야가 있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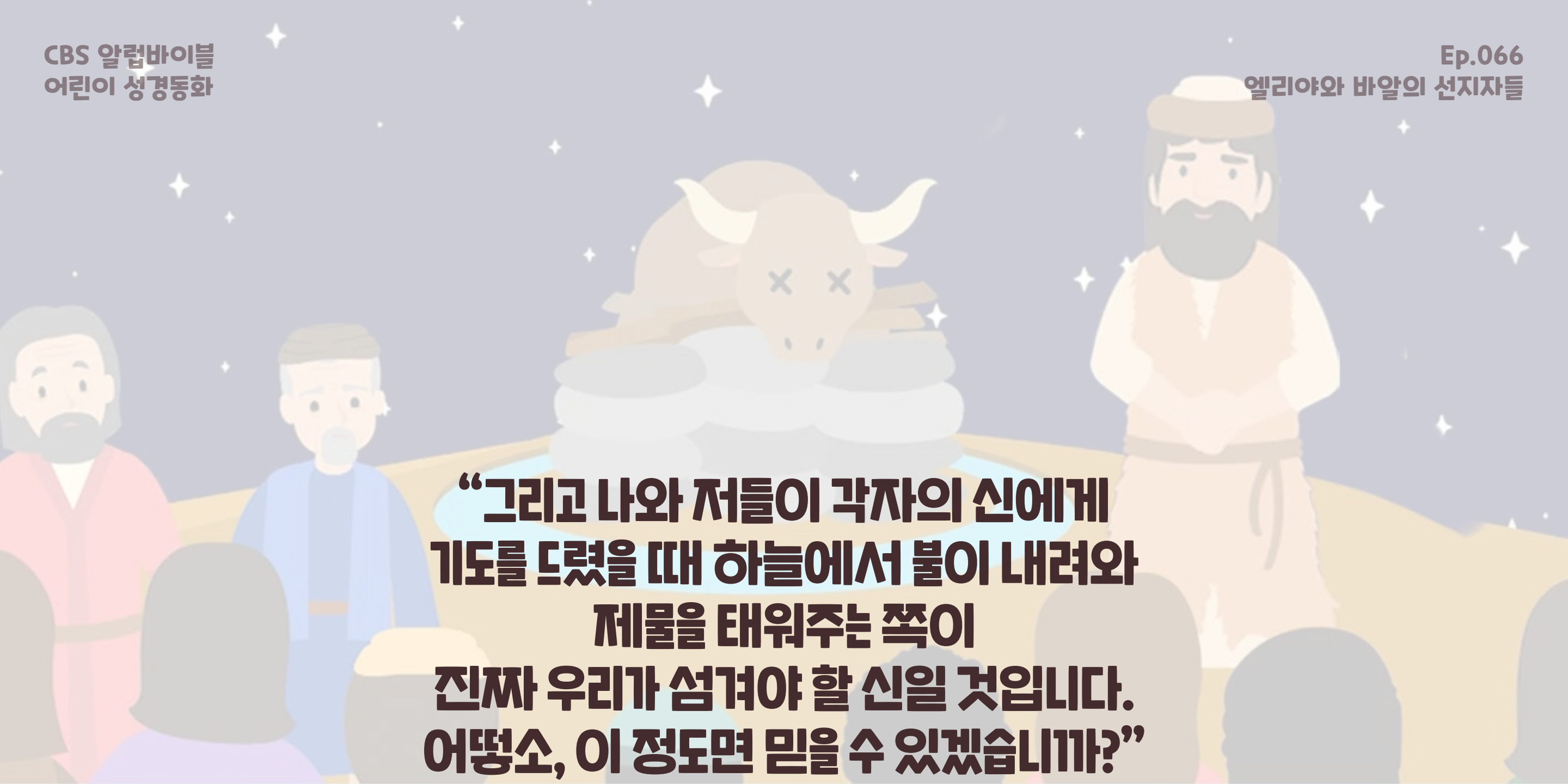
**“여러분은 대체 언제까지!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 
왔다 갔다 할 생각입니까?  
바알이든 하나님이든 한쪽만 선택하시오!”**

**하지만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 
잠잠히 있을 뿐이었어요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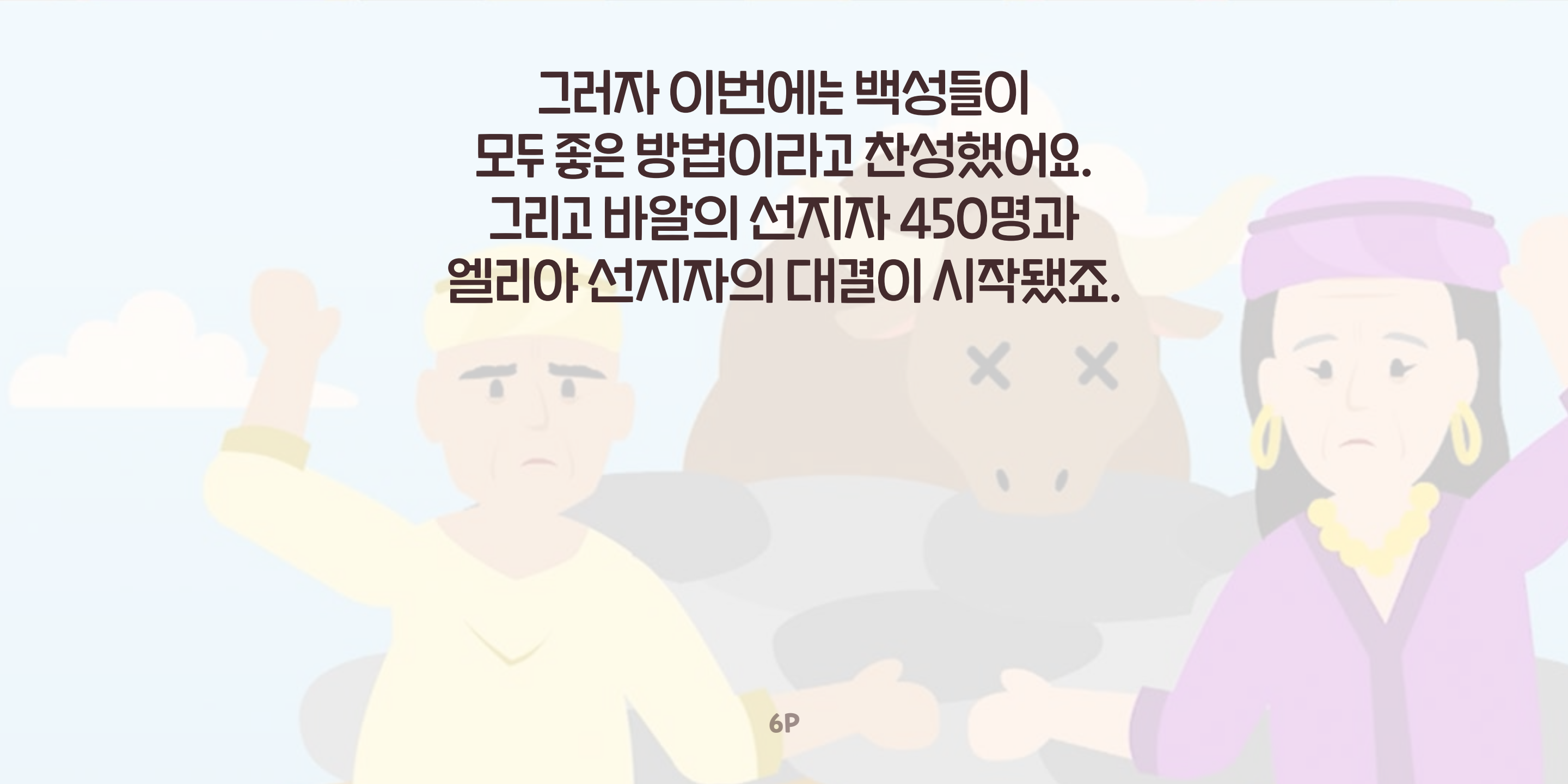


**“여기,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한 명뿐이고  
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입니다.  
우리가 각각 제단을 쌓고 소 두 마리를 잡아  
하나님께 제물로 한 마리씩 바칠 것입니다.”**






**“그리고 나와 저들이 각자의 신에게  
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 
제물을 태워주는 쪽이  
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일 것입니다.  
어떻소,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?”**



**그러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 
모두 좋은 방법이라고 찬성했어요.  
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 
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이 시작됐죠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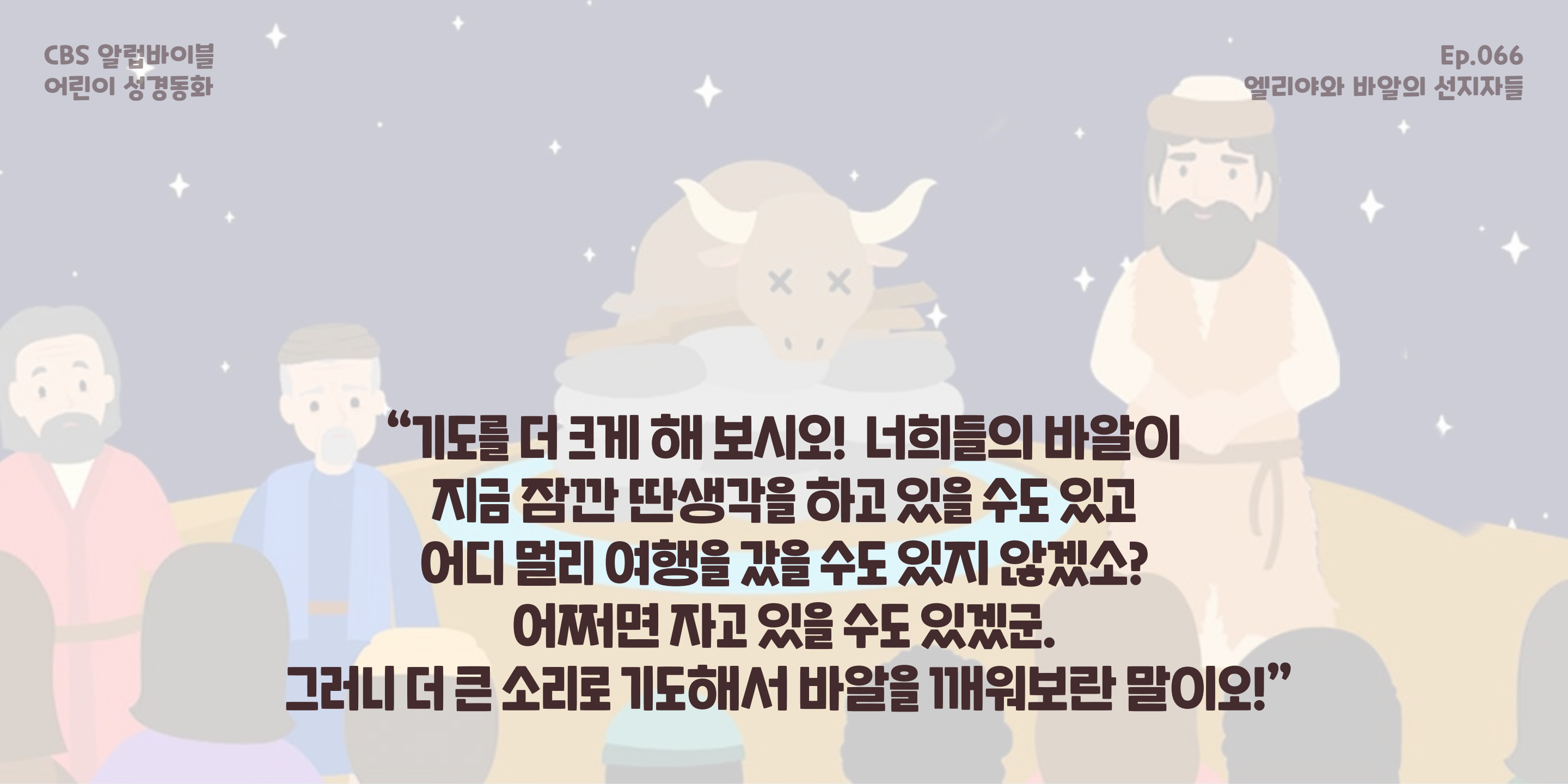


“우리의 바알 신이여  
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.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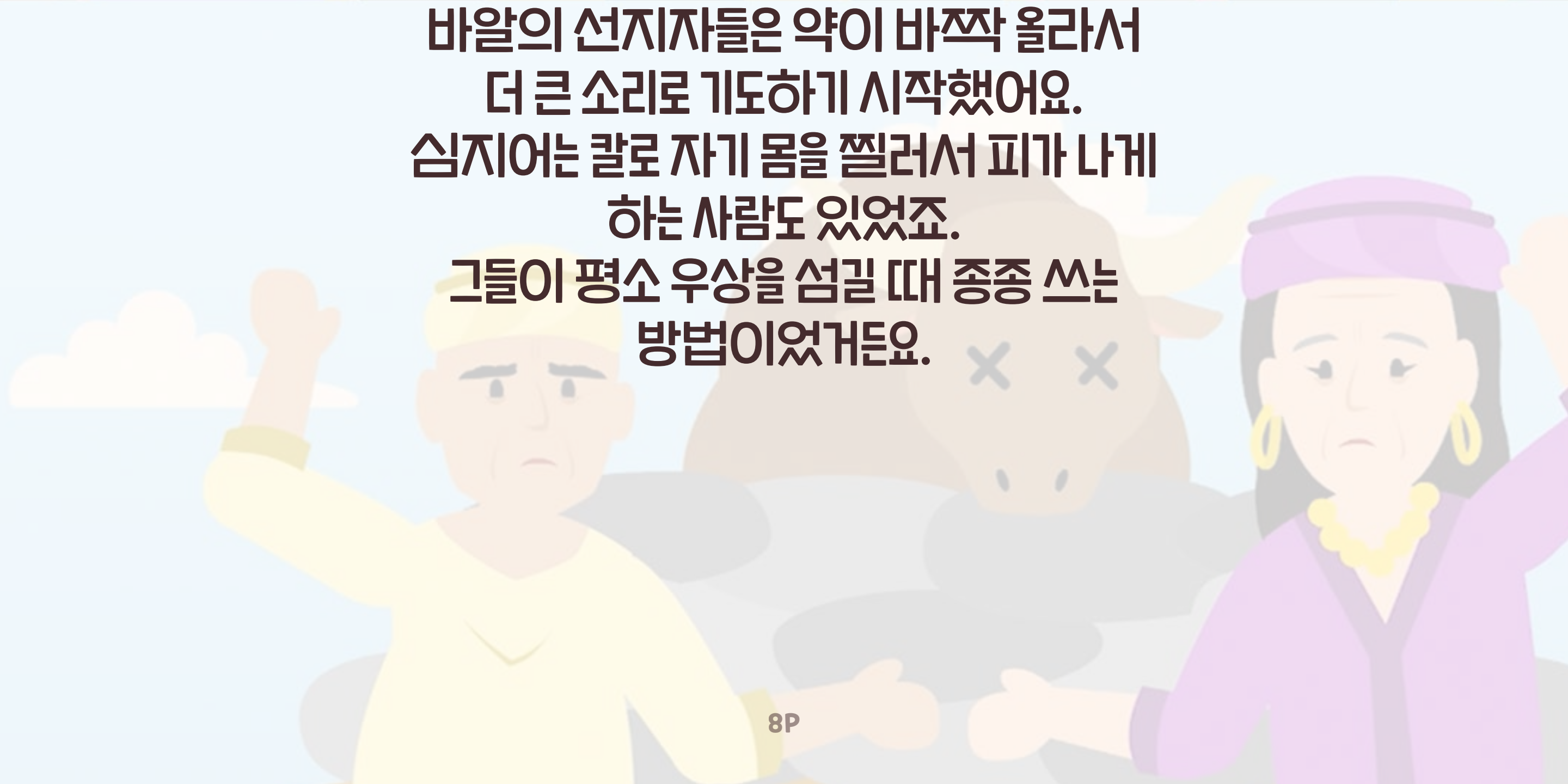
아침 일찍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 
그들은 기도를 드렸고 기도도 소용이 없자.  
제단 둘레를 빙빙 돌며 춤을 추기도 했어요.

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.  
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어요.






**“기도를 더 크게 해 보시오! 너희들의 바알이  
지금 잠깐 딴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 
어디 멀리 여행을 갔을 수도 있지 않겠소?  
어쩌면 자고 있을 수도 있겠군.  
그러니 더 큰 소리로 기도해서 바알을 깨워보란 말이요!”**



**바알의 선지자들은 약이 바짝 올라서  
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.  
심지어는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 
하는 사람도 있었죠.  
그들이 평소 우상을 섬길 때 종종 쓰는  
방법이었거든요.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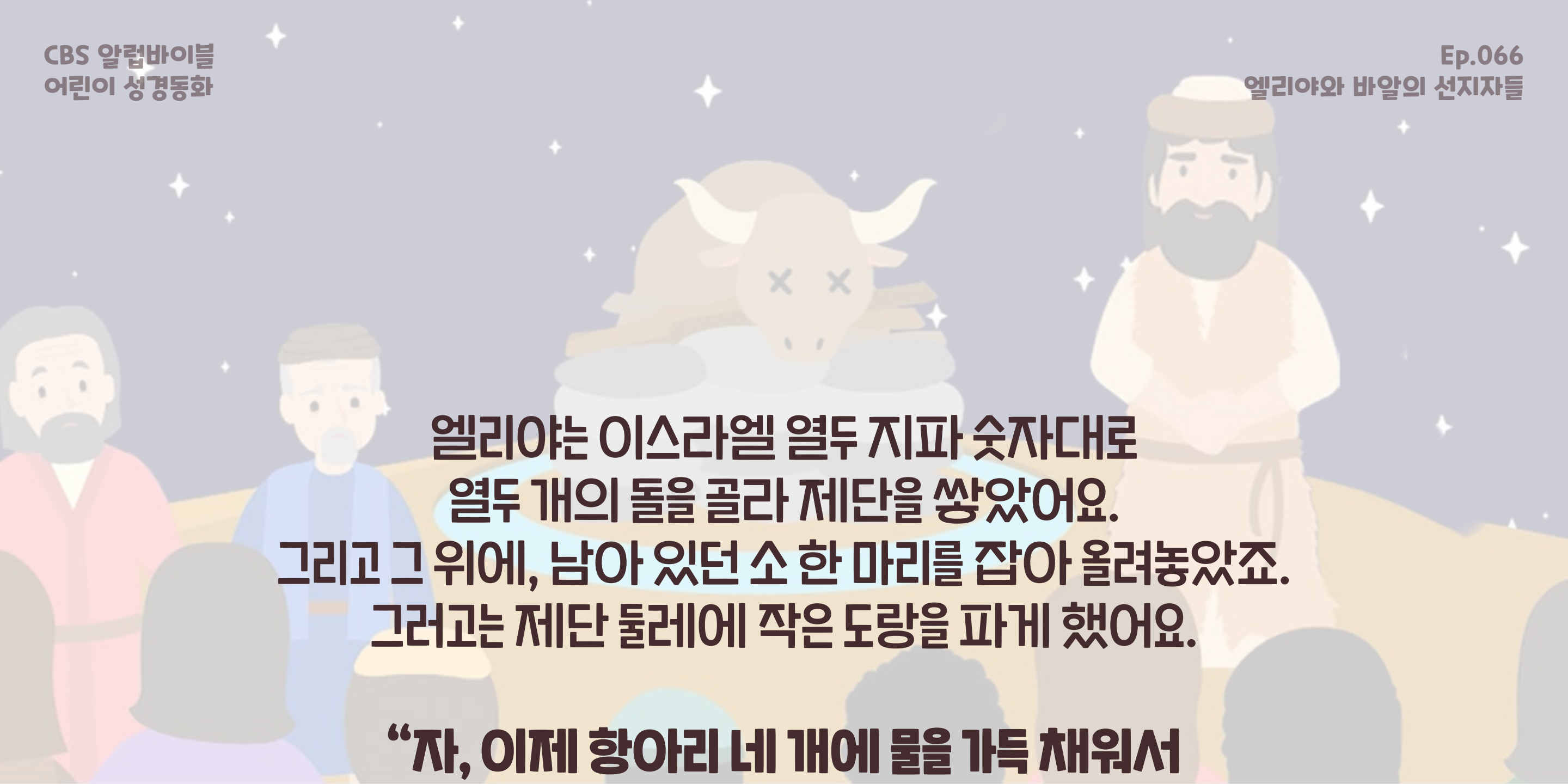
그렇게 요란한 의식이 한참 동안 이어지고  
어느덧 어둑어둑 저녁이 되었어요.  
여전히 하늘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.

그러자 지켜보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 
말했어요.

“이제 나에게 오시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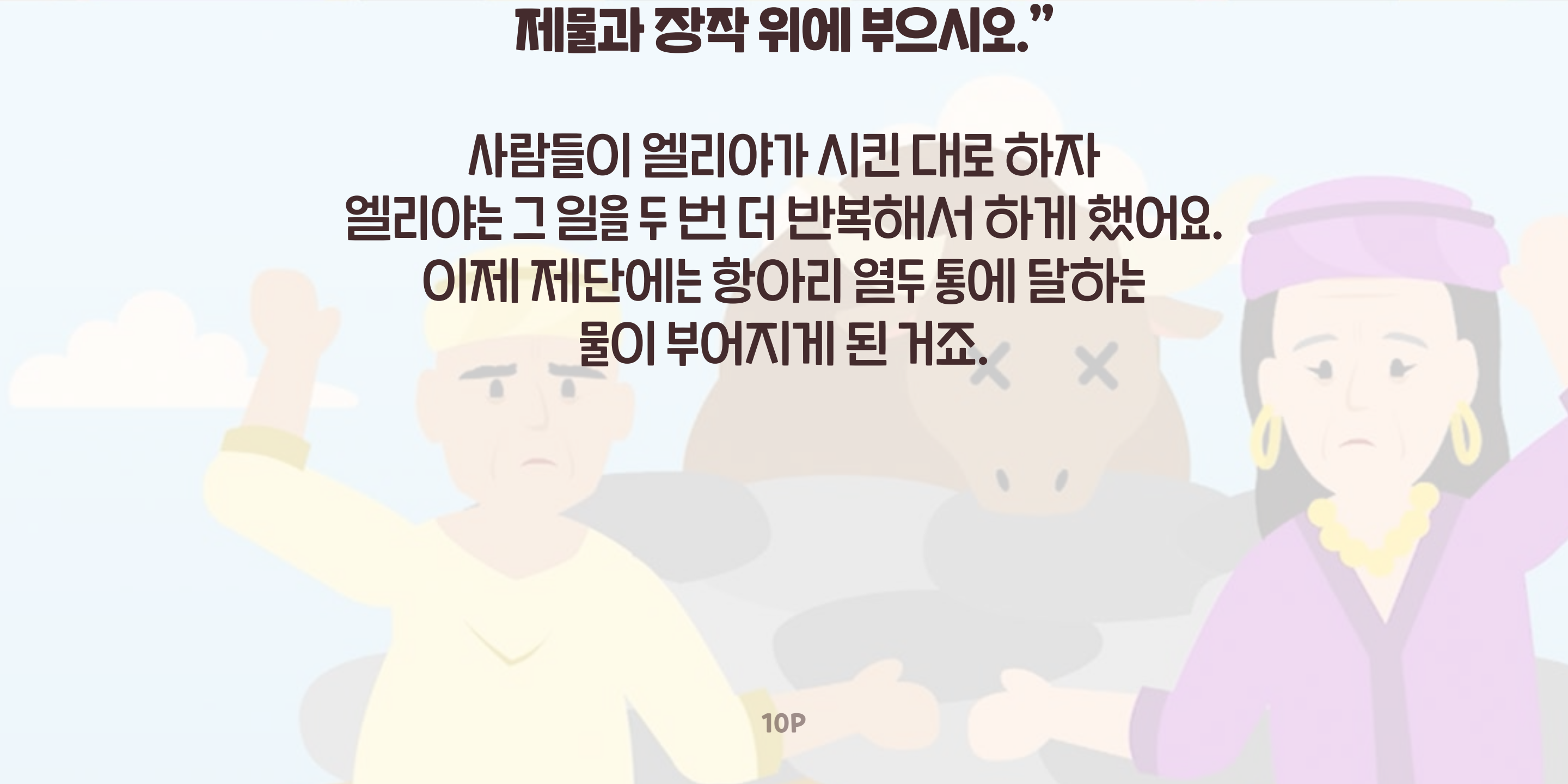







엘리야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숫자대로  
열두 개의 돌을 골라 제단을 쌓았어요.  
그리고 그 위에, 남아 있던 소 한 마리를 잡아 올려놓았죠.  
그러고는 제단 둘레에 작은 도랑을 파게 했어요.

“자, 이제 향아리 네 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 
제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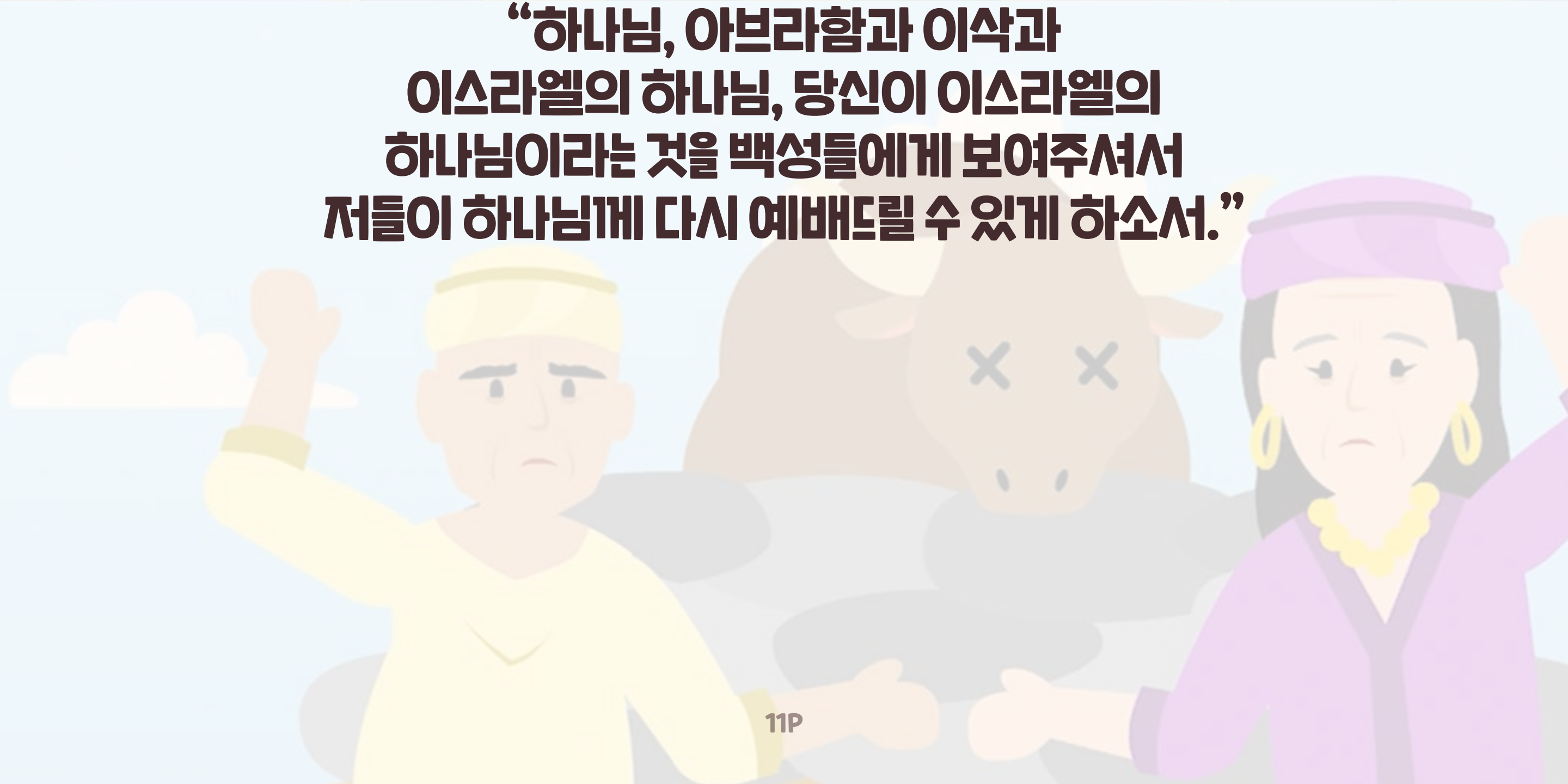


사람들이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하자  
엘리야는 그 일을 두 번 더 반복해서 하게 했어요.  
이제 제단에는 향아리 열두 통에 달하는  
물이 부어지게 된 거죠.




물은 제단 둘레 도랑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 
어느새 장작과 제물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죠.  
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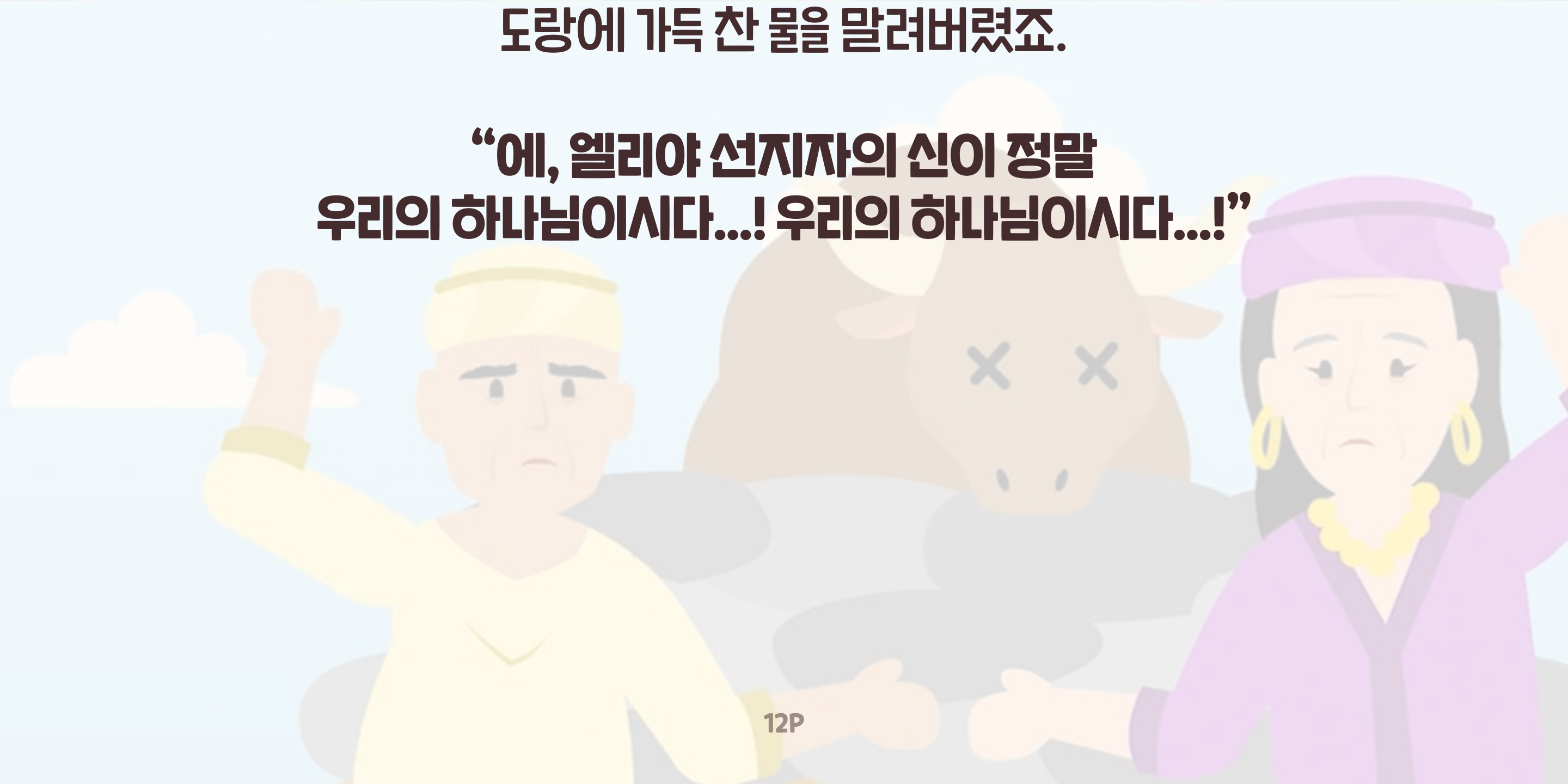
“하나님, 아브라함과 이삭과  
이스라엘의 하나님, 당신이 이스라엘의  
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 
저들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소서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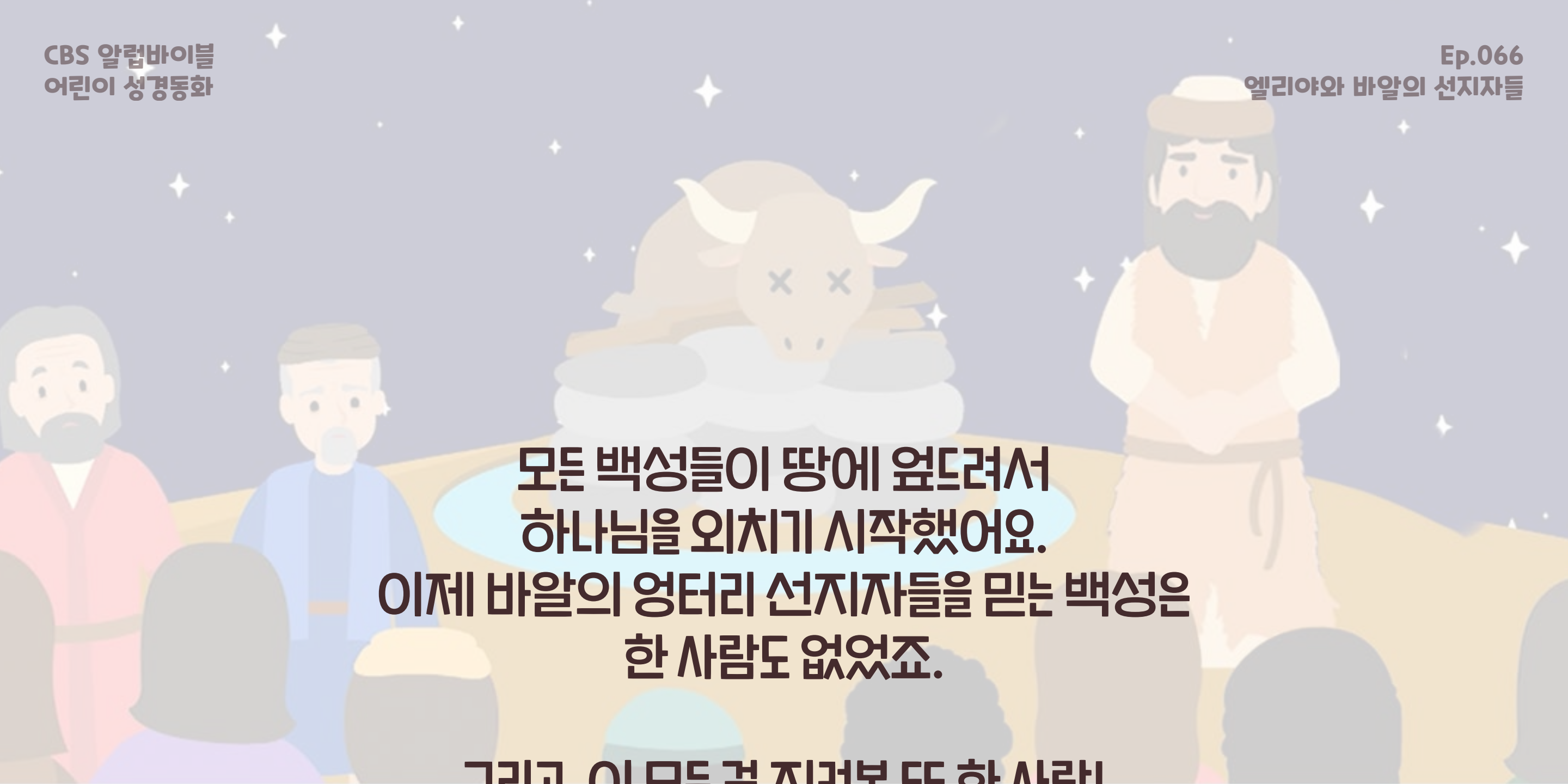




바로 그때, 어두컴컴한 하늘에서  
반짝, 불빛이 보이더니 하늘에서  
불이 떨어졌어요!  
불은 놀랍게도 흠뻑 젖어있던 제물을 몽땅 태우고  
도랑에 가득 찬 물을 말려버렸죠.



“에, 엘리야 선지자의 신이 정말  
우리의 하나님이다...! 우리의 하나님이다...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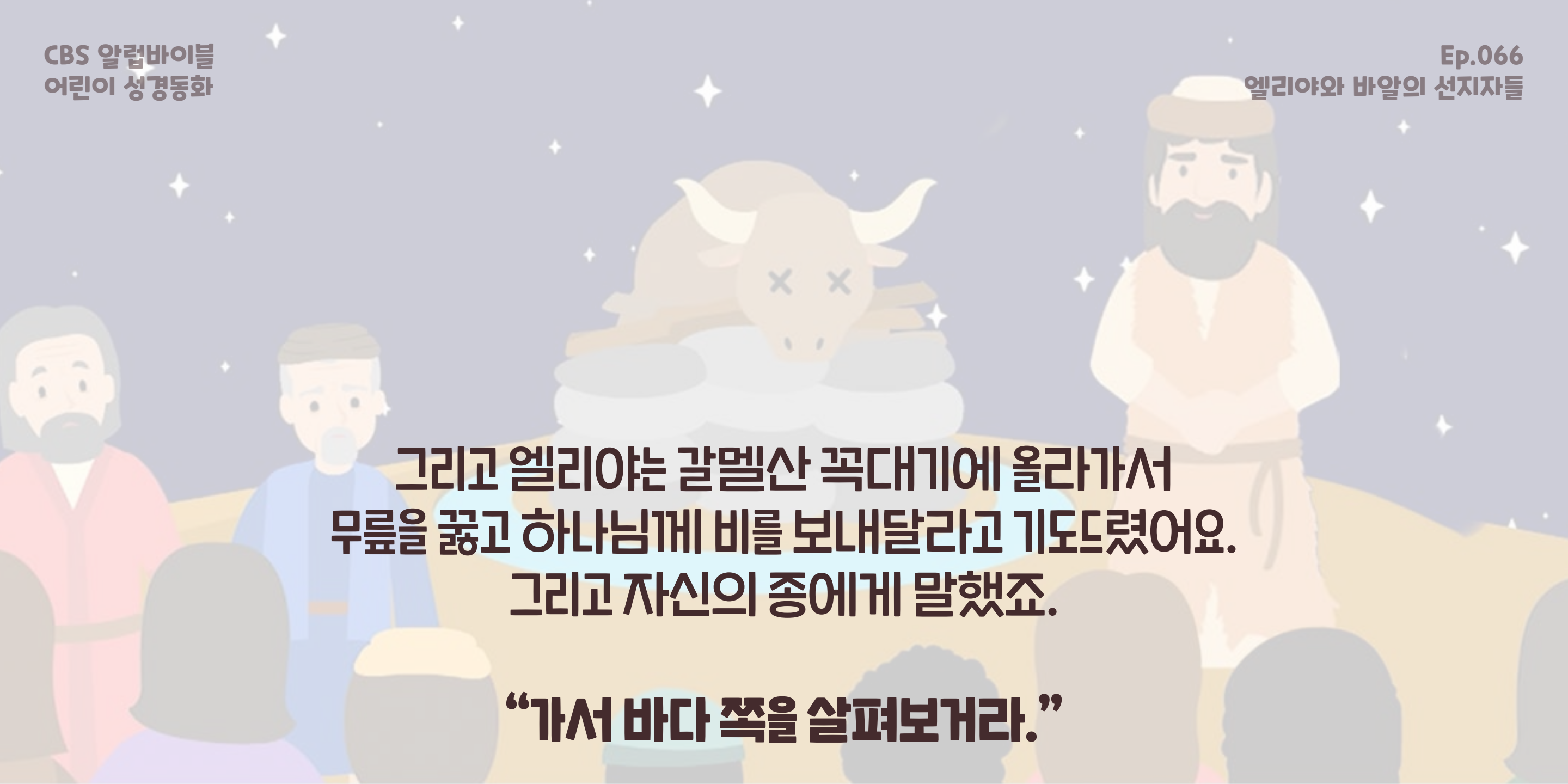
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 
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했어요.  
이제 바알의 엉터리 선지자들을 믿는 백성은  
한 사람도 없었죠.

그리고, 이 모든 걸 지켜본 또 한 사람!  
아합왕이 있었어요.  
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합왕에게  
엘리야가 다가가 말했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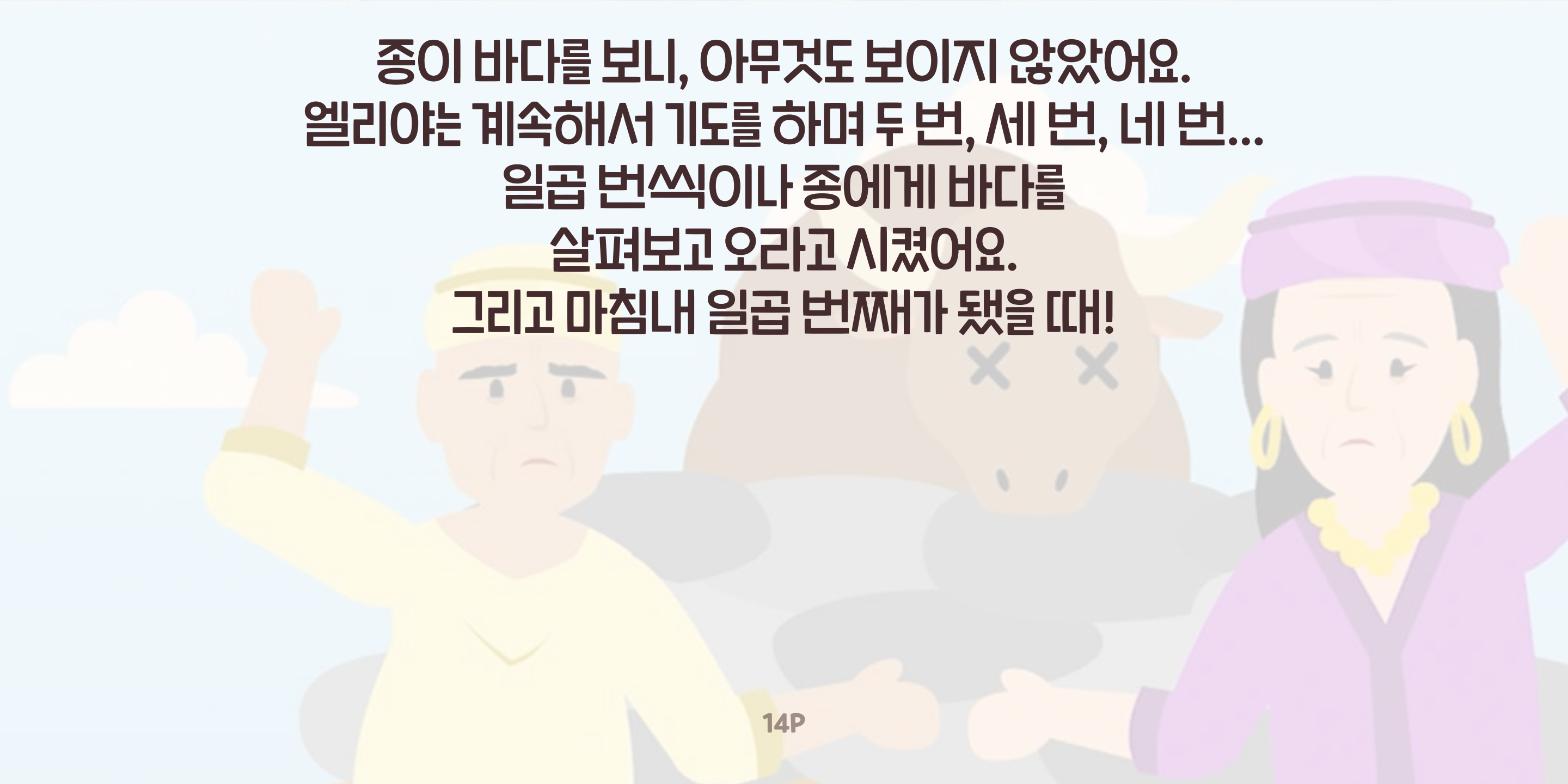
“이제 가뭄은 끝났소.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니.”





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 
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드렸어요.  
그리고 자신의 종에게 말했죠.

“가서 바다 쪽을 살펴봐거라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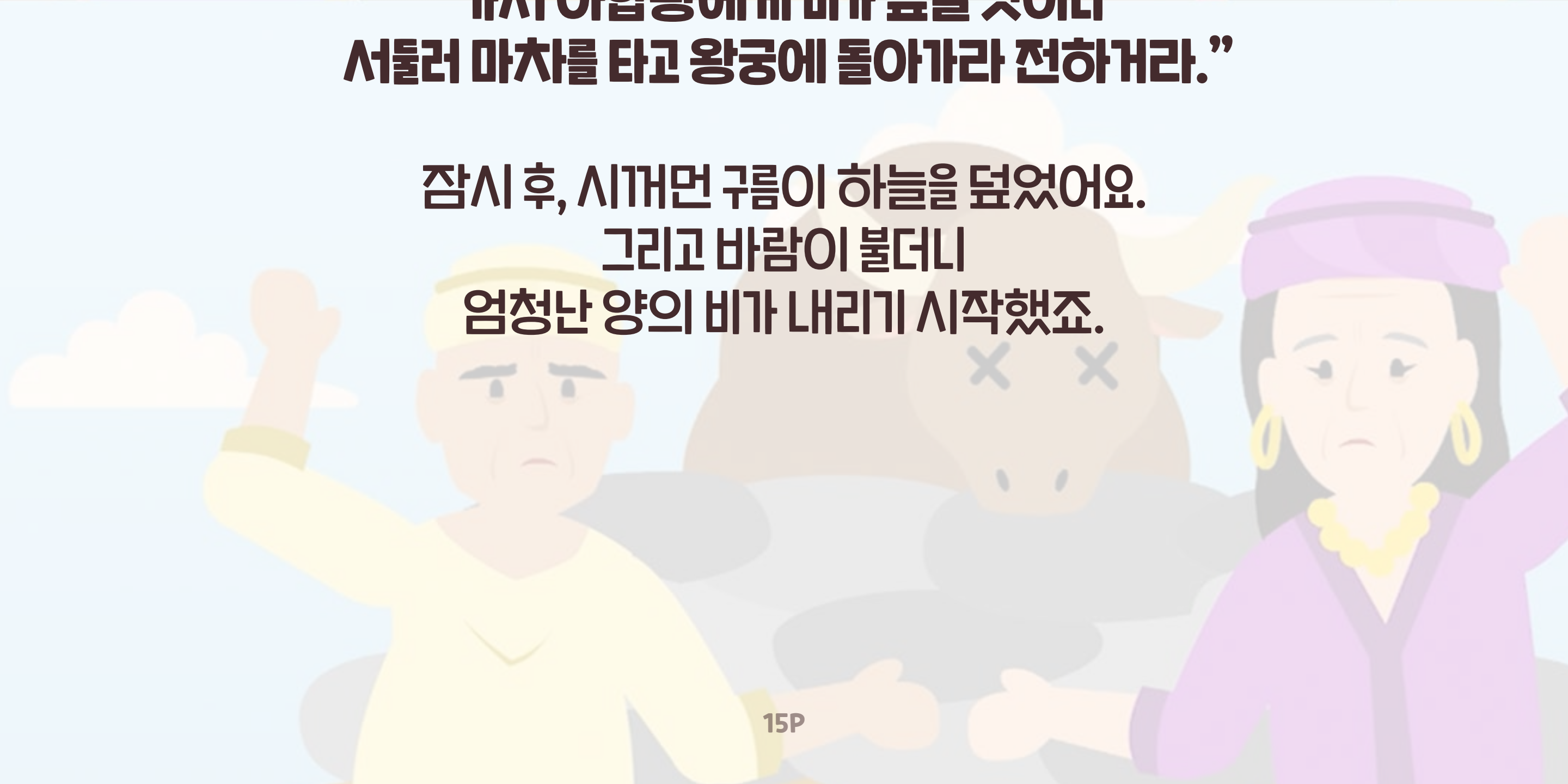
종이 바다를 보니,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.  
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두 번, 세 번, 네 번...  
일곱 번씩이나 종에게 바다를  
살펴보고 오라고 시켰어요.  
그리고 마침내 일곱 번째가 됐을 때!



종이 엘리야에게 허겁지겁 달려와 말했어요!


“선지자님! 사람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 
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!!”

“그래, 이제 되었구나.  
가서 아합왕에게 비가 덮칠 것이니  
서둘러 마차를 타고 왕궁에 돌아가라 전하거라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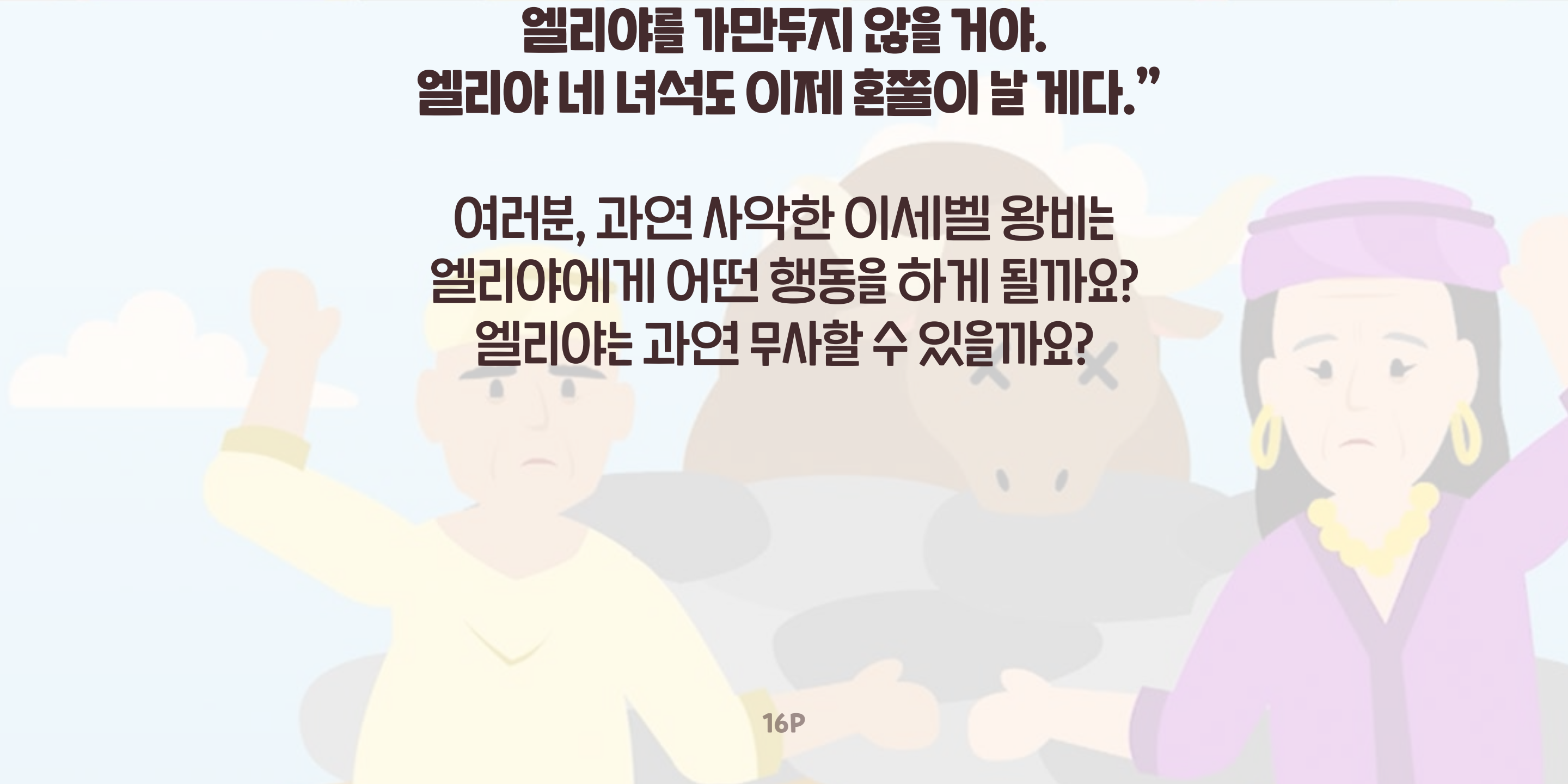
잠시 후, 시개먼 구름이 하늘을 덮었어요.  
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 
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.





바짝 말라 있던 북이스라엘의 땅이  
빗물을 시원하게 빨아들였습니다!  
한편,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 
아합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.

“오늘 벌어진 일을 내 아내 이세벨이 알면  
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.  
엘리야 네 녀석도 이제 혼쭐이 날 게다.”



여러분, 과연 사악한 이세벨 왕비는  
엘리야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?  
엘리야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?